

네 몸은 피로 값을 주고 산 내 것이다

1. 쓸모없는 길 같아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쓸모 있는 길인데 사람들은 왜 그 길을 가기 싫어한다고 하셨습니까?
2. 생명길, 영생길은 세상의 어떤 길처럼 쉽게 찾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을 잘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3. 걱정·염려·고민하지 않고 환난 중에도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솟듯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4. 주님은 어떤 자에게 말씀을 계시해주시고 주님의 사역자로 쓰신다고 하셨습니까?
5. 자기를 영생의 길로 이끄는 영혼의 미가 되며, 육신의 미도 더욱 빛나게 하는 미는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6. “내 자비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7.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기면 무엇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까?
8. 주님이 우리의 몸을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주고 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9. 우리의 몸은 주님이 피로 값을 주고 사신 몸이니 제 2의 주님이 되어 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되어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까?
10.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회개해야 한다고 하셨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셨습니까?
11. ‘그리스도’란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12.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3.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말씀의 핵심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4. 기도가 잘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기에 주님께 말씀드렸더니 무엇이라고 답해주셨습니까?

15. ○○한 자가 되지 않으면 온전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님과 ○○되어야 그 나라를 그와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16. 성경의 모든 말씀은 주님의 ○○입니다. ○○입니다.

17.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나와 ○○되어 살면 누구든지 제 2의 나다.

18. 내 아버지의 ○대로 사는 것이 영원한 주권이다. 영원한 기쁨이다. 영원한 사랑이다.

19. 오염된 물과 썩은 물과 같은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썩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바다에 이르러야 썩지 않는 몸이 됩니다. 이는 몸과 마음과 영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20. ○○○○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면 걱정·염려·고민에 빠지게 된다. 내 말도 들어 보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혹은 스스로 닦친 일을 보고 생각하며 걱정·염려·근심들을 한다.

21. 나쁜 쪽만 보고 실망하지 말고 좋은 쪽을 보고 ○○○○○. 너희가 나쁘다고 실망한 것에 내가 볼 때는 너희가 실망한 만큼 좋은 것이 있다.

(정답)

1. “고난의 길ियो, 고통의 길ियो,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다. 고생되지만 생명길이다.”
2. “정말로 내게 응답을 받고 가야 된다. 가다가도 그때의 상황과 이치에 따라 또다시 오른쪽, 왼쪽으로 바뀌 가야 된다. 너희들은 어린아이 같아서 늘 내 손을 잡고 다녀야 된다. 오직 나만 꼭 붙잡고 그 길로 평생 전심을 다해 살아야 된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가야 된다. 매일, 매시간 나를 찾아라. 내 손을 꼭 잡아야 된다.”
3. “내 말을 그 어떤 말보다 너희 삶에 최우선 순위에 놓고 믿고 지켜라. 그리해야 걱정·염려·고민하지 않고 환난 중에도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솟듯 한다.”
4. “내 말을 제 1로 여기는 자에게 내 말을 계시해 준다. 이런 자를 나의 사역자로 쓰고 외치게 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생명같이 여기고, 내 말이 곧 나인 줄 알고 내 말씀에 들어야 된다. 말씀을 나같이 대하고 마음에 품어라. 내 말을 생명시하지 않고 지키지도 않으므로 사망으로 가며 영생의 길로 오지 못하는 것이다.”
5. “선의 미, 순종의 미, 나를 사랑하고 극진히 섬기고 믿고 행하는 미, 겸손의 미, 생명을 귀히 보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돌보는 미, 서로 위해 주고 화평케 하는 미, 인격의 미, 말씀의 미, 끝까지 해내는 미, 변함없이 꾸준히 행하는 미, 나와 하나 되어 사는 미, 말씀을 귀히 보고 찾고 내게 배우는 미,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미, 어디에 갇다 놓아도 시계처럼 끊임없이 착오 없이 사는 미… 이 같은 미는 자기를 영생의 길로 이끄는 영혼의 미가 된다. 그리고 육신의 미도 더욱 빛나게 한다.”
6. “나는 지옥으로 가는 자들을 날마다 찾는다. 목자가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듯이, 지옥으로 가는 자들을 찾고 그들에게 신경을 쓴다. 그러나 그들은 인정사정없이 나를 무참히 대하며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좋아하며 가고 있다. 배신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구나.”

7. “너희를 내게 맡기면 내가 무엇을 해 주겠느냐. 영혼을 소생시켜 하늘나라에 가게 해 줄 것이다. 영이 잘되면 육신도 같이 잘된다. 내가 다스려야 내 세상인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다. 육도 영도 다 내게 맡기고 내가 명한 일을 해야 된다. 너희가 어떤 것을 알지 못해도 너희들이 모르는 대로 내가 알아서 때에 따라 인도한다.”

8.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들을 샀으니 내 것이 되었다. 그 목적은 너희들이 멸망 받아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너희 영을 천국으로 데려가려 함이다.”

9. “너희의 몸은 내가 산 몸이니 나와 같이 사랑하여라.

나와 같이 행하여라. 나와 같이 긍휼히 여겨라. 나와 같이 말씀을 전하여라. 나와 같이 너희도 생명을 보살피고, 먹여 주고, 입혀 주고, 재워 주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오직 선으로 악을 대하고 갚아라. 사람을 분별하고 나를 대하듯 하여라.

온유와 겸손과, 죽기까지 순종과 사랑과 위함이다. 형제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섬겨 주며 서로 돕고 화평하고 근신하여라.

또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서로 사랑하고,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행하여라.”

10. “그리스도의 몸인데 자기의 것으로 쓰며 산 자는 이 말씀을 듣고 속히 회개하여 주님께 그 몸을 다시 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것인데 제 것같이 사용했던 것을 다 회개하고 원상태로 돌려놔야 됩니다. 주님의 몸을 자기 몸으로 쓰는 자는 죄를 지은 자이며 법을 범한 자입니다. 자기 몸으로 쓰는 자는 구원을 포기해야 됩니다.

주인이 해 달라고 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없애는 것이 하나의 회개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정수하는 것입니다.”

11.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세주,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12.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 역시 “걱정 마.”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인 것을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13. “지상에서 그 악한 육신을 위해, 육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 네 마음대로 살

면 안 된다. 결혼한 몸은 배우자의 몸이요,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의 몸이다. 이와 같이 너희는 내 몸이다. 너희가 내 몸인 것을 알고, 어디를 가든지 나를 최고 우선순위에 놓고 네 몸을 내 것으로 써야 된다.”

14. 이에 주님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너희 행함을 하나하나 내게 말하여라. 회개되었는데 모르고 자꾸 죄의식을 갖는 자도 있다. 또 회개가 안 되었었는데 회개된 것으로 생각하는 자도 있다. 작은 것도 매일 씻듯이 회개하라. 제때 잠을 안 자면 잠이 밀려서 어디를 가도 졸리고 쓰러진다. 죄도 제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쓰러지는 신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15. 온전, 일체
- 16. 계시, 명령
- 17. 하나
- 18. 뜻
- 19. 거듭
- 20. 자기생각
- 21. 기뻐하여라.